

성장 장애·집중력 저하...성장기 때 비염 빨리 치료해야



건강 바로 알기 알레르기 비염

백상철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마스크 제한이 해제되고 봄꽃들이 만개하면서 따뜻한 봄 향기와 함께 증가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에 코 점막이 노출된 후 자극되어 염증반응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은 지난 50년간 상당히 증가하여 성인의 경우 10~30%, 소아의 경우 40%의 높은 유병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

알레르기 비염의 3대 주 증상은 맑은 콧물, 코막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 재채기로 이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 있다. 이 외에 눈 또는 코의 가려움증, 후각감퇴, 청력장애, 두통 등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손바닥으로 코를 밀어 올리는 행동, 콧잔 등의 주름, 눈 밑의 보라빛 착색, 눈 밑에 여러 겹의 주름과 같은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축농증(부비동염)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천식 증상이 있는 환자의 75~80% 정도에서 비염 증상이 발견된다.

알레르기 원인물질, 코 점막에 염증반응 50년간 꾸준히 증가...소아 유병률 40% 회피·약물·면역 요법 병행해 증상 조절 청소·빨래 자주하고 온도·습도 조절 중요

꽃물, 코막힘과 함께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등을 동반하는 감기, 노인들에서 발병한다. 코 막힘, 가려움 등의 증상은 없고 오직 맑은 콧물만 발생하고, 온도 차이나 음식 등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는 혈관운동성 비염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항원의 종류에 따라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동물 항원 등에 연중 증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통년성과 꽃가루 등에 의해 특정 계절에 증상이 악화되는 계절성, 그리고 온도변화, 담배 연기, 공해 물질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비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진단과 치료

알레르기 비염은 콧속을 들여다보는 비강 검사와 피부반응검사, 면역글로불린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하는데 비강 검사를 통해서 본 콧속 점막의 부종과 점막의 색깔, 마른 정도, 콧물의 양상 등을 통해 알레르기 비염의 정도와 종류를 파악한다. 또한 피부반응검사를 통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의 종류와 알레르기 유발 강도를 파악하여 알레르기 비염뿐 아니라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어린이 성장기 때 비염을 앓게 되면 성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집중력 저하로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빠른 치료 및 관리가 요구된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과 관련된 항원을 피하는 회피요법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회피요법 단일 치료만으로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기 어렵고 약물요법, 면역 요법 등을 병행하여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을 외감 풍한, 외감 풍열과 같은 외부의 나쁜 기운이 몸으로 침입해 나타나는 경우, 기체 혈이 등 몸 안의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독소가 누적됨으로 인해 면역 기관이 온 경우, 폐기허 등 폐의 기운이 약해지고 몸의 면역력과 자연 회복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보아 진단을 통한 변증으로 원인에 맞게 치료한다.

알레르기 비염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은 꽃가루 알레르기의 경우 문, 창문을 닫고 야외활동을 제한



백상철 원장



상무365한방병원 백상철 원장이 비염치료를 위해 침 시술을 하고 있다.

하며 야외활동 후 샤워 등을 통해 꽃가루 노출을 줄인다. 살균제 사용, 가습기 청소 주의, 제습기 사용을 통해 실내 곰팡이를 줄이고, 집먼지진드기 차단을 위해 매트리스, 베개, 침대 등에 지퍼가 달린 커버를 사용하고, 청소와 빨래를 자주 하며, 실내 습

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름이나 겨울철에 실내 외 온도가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조형호 교수 연구팀, 이과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조형호(사진) 교수 연구팀이 지난 1~2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66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조형호 교수와 고유승 박사는 이번 학술대회서 'LPS유도 중이염에 대한 적색광 및 근적외선 LED 동시 조사의 치료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LPS유도 중이염 모델에서 적색광과 근적외선 동시 조사를 통해 중이염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입증, 향후



조형호 교수

항생제 사용 및 재발을 줄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웨어러블 중이염 치료기를 개발 완료했고, 기술 및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다.

조형호 교수는 "그동안 추진한 연구결과가 많은 의료진들에게 인정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

전남대병원 최명이 간호부장, 광주시병원간호사회회장 선출

전남대병원 최명이(사진) 간호부장이 광주광역시병원간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시병원간호사회는 지난 5일 전남대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최명이 간호부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 2년. 광주시병원간호사회는 광주지역 내 48개 의료기관의 604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 대표 간호사 모임이다.

최명이 회장은 지난 1986년 전남대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시작해 내·외과병동, 중환자실 수간호



최명이 회장

사, 행정팀장, 교육팀장, 간호과장을 역임한 후 올해 전남대병원 간호부장에 취임했다.

최명이 회장은 "앞으로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간호사가 행복한 간호현장과 병원간호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의료기기시험검사·비임상시험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해외인증 대신해 시간·경비 절약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센터장 박상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과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으로 지정받아 두개의 독립된 시험평가 검사기관이 됐다.

〈사진〉

시험연구센터가 최근 지정받은 GLP(Good Laboratory Practice)기관은 OECD 국가 상호간에 신뢰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GLP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진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연구센터는 비임상시험을 요구하는 기업체에게 식약처 인증 '세포독성 시험평가 허가용 성적서'를 지난 3월부터 발행하고 있다. 세포독성 시험(Cellular toxicity assay)은 화학 물질, 약물, 화장품 등의 물질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다.

박상원 시험연구센터장은 "GLP 시험성적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상호 인증을 받고 있어 해외에 나갈 필요 없이 국내 인증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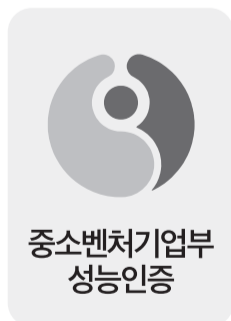
의 시험 성적서를 취득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기 수출 시 해외에서 별도로 검사할 필요가 없어 검사와 관련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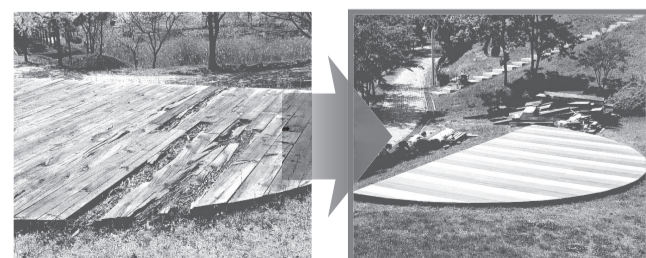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